

# 순천시 2040년 인구 30만 미래형 생태수도 조성

### 자연·인간 공존, 정원속의 도시·원도심 르네상스 8개 과제 선정 자율주행차 등 교통기반 구축...정원박람회, 생태박람회로 확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순항하고 있는 순천시가 2040년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순천시는 오는 2040년 계획인구 30만명을 달성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형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정원박람회를 '생태박람회'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순천시가 문화건강센터에서 연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1995년 도농복합도시 시작을 알린 순천시는 오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의 핵심 주제를 '공생과 희망의 생태수도, 일류 순천'으로 내걸었다.

생태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는 ▲정원속의 도시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이 편한 대자보 도시 ▲도시 공간 성장관리 ▲원도심 르네상스 ▲도·농 상생 발전 ▲미래 성장동력 육성 ▲탄소중립 도시 ▲남해안 벨트 중심 도시 등 모두 8개이다.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은 2도심(원도심, 조례·연향도심) 1부도심(신대·선월) 5지역중심(해룡·송

주·주암·별랑·황전) 체제를 따른다.

고층·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원도심과 도시 팽창을 추구하는 신도심으로 나눠 도시 공간을 관리한다.

원도심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오래된 주택을 정비해 주거·숙박시설로 탈바꿈하는 '르네상스' 시기를 맞을 예정이다.

청년문화의 중심지가 될 순천대학교 일원과 '북한문화 중심지' 중앙동 일원, '미래 교통수단 중심지' 순천역, '도시정원문화 중심지' 터미널(경전선 부지) 일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 순천시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순천역에 철도와 대중교통,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아우르는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트램 등 새 교통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전기

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 기반도 구축한다.

'대자보 도시'의 핵심 수단인 자전거가 다니기 편한 도로 기반도 조성된다. 자전거 도로 간선망은 동서 3축, 남북 1축, 순환 1축으로 구성한다. 광양 서천 자전거길과 보성강 자전거길 등 동부권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이다.

차도와 분리된 4~5km 길이 보행 전용 도로도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 마련한다.

순천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인을 받고 전남도지사에 승인을 신청,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열람·공고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총 기자 ejkim@kwangju.co.kr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곡성군, 내달 초까지 주2회

곡성군이 다음달 초순까지 9주간 13개 경로당을 찾아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여름철 치매예방교실은 주 2회씩 진행한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와 전문 강사들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 주민을 위해 마을 경로당을 찾아 수업을 연다.

참가자들은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향상에 좋은 체조, 요가, 미술, 음악교실 수업을 듣는다. 곡성군은 고령 주민 가운데 치매 환자가 1519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 치매 환자와 치매 위험군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치매 예방을 위한 수업과 맞춤형 상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 광양 망덕포구 전어 축제 열린다

### 25~27일 무점점광장서 개최 전어잡이 체험·가요제·백일장

광양시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월면 망덕포구 무점점광장에서 '22회 광양전어축제'를 연다.

축제가 열리는 곳은 섬진강 오백오십리 물길과 남해 바닷물이 만나 전어를 포함한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축제장에서는 구수한 된장을 살짝 찍어 한입 가득 싸 먹는 전어회와 새콤달콤 무쳐낸 전어회무침, 왕소금을 뿌려 노릇노릇 구워낸 전어구이 등을 맛볼 수 있다.

망덕포구는 전라좌수영 주둔지이자 배를 만들었던 선소가 있었던 역사 공간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친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정병욱 가옥, 윤동주 시 정원 등이 있는 문학 공간이다.

광양전어축제는 '달빛나루! 망덕포구에서! 여름의 끝자락은 고소한 전어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다.

방문객들은 전어 잡기 체험하고 전어잡이 소리 시연과 전어가요제를 즐길 수 있다.

행사 기간 윤동주의 유고를 보존한 정병욱 가옥을 조명하는 백일장 대회가 열린다.

또 청소년 행복 락(樂) 페스티벌, 어린이 난타, 마술 저글링, 7090 포크 음악, 퓨전국악, 포에버윈드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광양전어축제(25~27일)가 열리는 진월면 망덕포구에서는 가을 별미 전어를 회, 회무침, 구이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광양시 제공>

26일 개막식에는 TV 경연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가수 정동원이 무대에 오르고, 화려한 불꽃 축제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망덕포구를 따라 걷다가 '별 헤는 다리'를 건너면 한국관광공사 안심 관광지 25선에 이름을 올린 '배

알도 섬 정원'과 '배알도 수변공원'도 갈 수 있다.

광양시는 전어축제가 열리는 25일부터 광양야경 시티투어, 망덕포구횡질거리 도장 찍기 여행 등을 진행하며 방문객들을 맞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케이씨 유니온 쌀 400포 기탁 (주)케이씨 유니온(회장 김창환)이 저소득층을 위한 쌀 400포(10kg 1000만원 상당)를 고흥군에 기탁했다. (주)케이씨 유니온은 녹동 신항 동문 디아스트 아파트 시행사로 지난 19일 홍보관 개관을 기념해 쌀을 전달했다. <(주)케이씨 유니온 제공>

# 고흥군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 공영민 군수 국비 확보 힘써...SOC 구축·일자리 창출·복지 향상 중점

고흥군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 101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첫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고흥군은 이를 10년 뒤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첫 번째 추경예산(9281억원)보다 8.8%(820억원) 증가한 규모다.

개정 이래 첫 연중 예산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4억원 증가한 9933억원, 특별회계는 56억원 증가한 168억원이다.

민선 8기 공영민 고흥군수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출신으로, 그동안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찾아 국비 확보에 힘썼다.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고흥군은 기반시설(SOC)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군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추경예산에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주요 현안과 주민 편의를 반영했다.

고흥군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최되는 31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달 7일 최종 확정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영민 군수와 군정 공직자들이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해 힘써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찾아 발품 행정을 펼친 결과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보성군 '레이더 탐지'로 싱크홀 예방한다

### 연말까지 보성읍·회천면 95km

보성군이 지난 침하(싱크홀)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한다.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는 레이더를 활용해 조사

구간을 주행하며 노면 하부 습은 동굴(공동·空洞)을 찾아낸다.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정밀한 위치를 추적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쓰인다.

보성군은 작은 규모 동굴에 대해서는 바로 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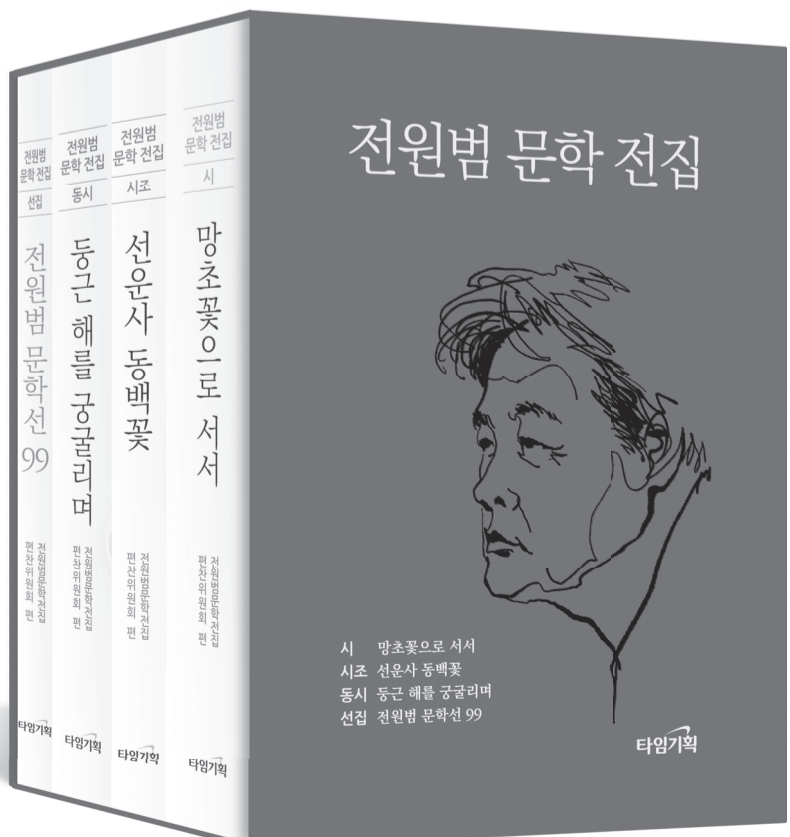
하고, 큰 동굴은 발생 원인을 파악한 뒤 복구할 계획이다.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는 지난 21일부터 군청사 주변 보성읍을 주요 도로에서 시작했다. 연말까지 보성읍과 회천면 일대 95km 구간을 대상으로 탐사를 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도로 침하를 사전에 발견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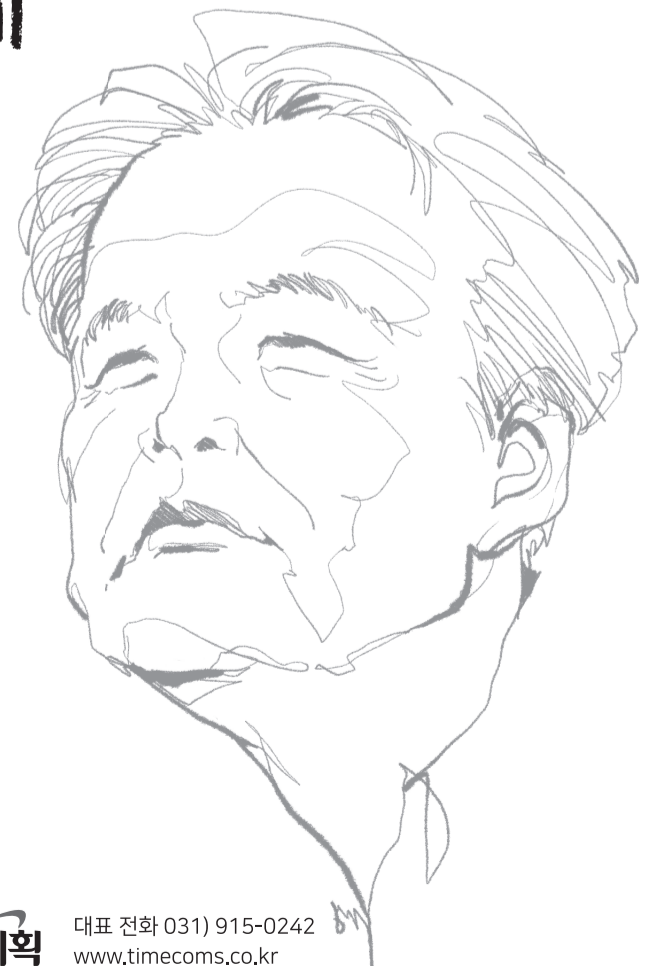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